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시치미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오늘의 뜻

자기가 하고도 하지 아니한 체하거나 알고도 모르는 체하는 태도. 과거 시치미_를 떼어 남의 매를 훔치던 일에서 비롯되었다.

문헌의 첫 기록
19세기

수록 용례
9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시치미'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 자기가 하고도 하지 아니한 체하거나 알고도 모르는 체하는 태도. 과거 시치미_를 떼어 남의 매를 훔치던 일에서 비롯되었다.

> 매의 주인을 밝히기 위하여 주소를 적어 매의 꽁지 속에다 매어 둔 네모꼴의 뿔.

시치미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시치미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시침이 사전 표기 요약	—	—	—	—	●→	●→
시치미 사전 표기 요약	—	—	—	—	—	●→
스침이 사전 표기 요약	—	—	—	—	—	●→
스치미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3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시침이
  19세기20세기
- 시치미
  20세기현재
- 스침이
  20세기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3종
시침이, 시치미, 스침이

시치미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등장 시기

‘시치미’의 옛말인 ‘시침이’는 19세기부터 나타난다.

표기와 소리의 특징

20세기에 ‘시침이’의 연철 표기인 ‘시치미’가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이때 근대 국어 후기에 ‘ㅅ, ㅈ, ㅊ’ 아래에서 모음 ‘ㅡ’가 ‘ㅣ’로 바뀌는 전설 모음화에 따른 변화에 표기가 섞여 쓰이면서 ‘스침이’가 함께 나타난다.

문헌 속의 시치미

전체 용례 9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9세기 시침이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시침이

출처 1899년6월2일-7월2일 매일신문 제1권 제47호-제73호:3ㄱ

용례 01

문헌 용례

젼쥬ᄂᆞᆫ 삼분의 일만 맛뵈고 나마지 돈은 시침이 떼고 먹ᄂᆞᆫ 것을 장긔로 알며.

현대어 풀이

전주는 삼분의 일만 맛뵈고 나머지 돈은 시치미 떼고 먹는 것을 장기로 알며.

20세기 시침이, 시치미, 스침이 외 1종 용례 8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시침이, 시치미, 스침이, 스치미

출처 1908 혈의누 62

용례 02

문헌 용례

셔싱이 ᄉᆡ로히 시침이를 써이고 창 밧게로 머리를 두루고 먼산을 바라보ᄂᆞ.

현대어 풀이

서생이 새로이 시치미를 떼고 창 밖으로 머리를 두르고 먼산을 바라보나.

출처 1908 빈상설 99

용례 03

문헌 용례

ᄂᆡ가 나셔지 안이ᄒᆞ야도 져놈만 압셰우면 원슈를 넉넉히 갑겠다 ᄒᆞ고 시침이 쑥 떼고 그놈의 비위가 당긔도록 슈작을 ᄒᆞ야 진담 토셜을 낙구아ᄂᆡ다.

현대어 풀이

내가 나서지 아니하여도 저놈만 앞세우면 원수를 넉넉히 갚겠다 하고 시침이 뚝 떼고 그놈의 비위가 당기도록 수작을 하여 진담 토설을 낚아 낸다.

출처 1912 구의산 상: 87

용례 04

문헌 용례

도로 쥬인집으로 도라와 수일을 아모 긔식 업시 시침이를 쑥 떼이고 잇다가 산이를 식여 칠셩어미를 좀 오라 청ᄒᆞ얏더니.

현대어 풀이

도로 주인집으로 돌아와 수일을 아무 기색 없이 시치미를 뚝 떼고 있다가 산이를 시켜 칠성 어미를 좀 오라 청하였더니.

출처 1908 송뢰금 상: 1_15

용례 05

문헌 용례

김 쥬ᄉᆞ 미국 갓단 말을 풍셜로ᄂᆞᆫ 드럿스되 시치미를 떼며 고담준론으로 쌀을 위로ᄒᆞ고.

현대어 풀이

김 주사 미국 갔단 말을 풍설로는 들었으되 시치미를 떼며 고담준론으로 딸을 위로하고.

출처 1938-04-01 학술지『한글』제06권 제04호: 26

용례 06

문헌 용례

오성은 시치미를 뚝 떼고, “리덕형이가[이덕형이가] 본대는[본디는] 김가온대[김가온데], 나라 일에 공로가 만흠으로[많음으로] 국성을 주서서[주셔서] 리덕형이라고도[이덕형이라고도] 하지요.

현대어 풀이

오성은 시치미를 뚝 떼고 "이덕형이가 본디는 김가온데 , 날라 일에 공로가 많음으로 국성을 주셔서 이덕형이라고도 하지요.

출처 1911 월하가인 66

용례 07

문헌 용례

무슨 궁리를 ᄒᆞ는지 우두커니 안졋다가 문갑 문을 여젼히 닷고 나려와 스침이를 싹 쎄고 벽동집다려 여보게 자네 문갑 여러 보앗나.

현대어 풀이

무슨 궁리를 하는지 우두커니 앉았다가 문갑 문을 여전히 닫고 내려와 시치미를 딱 떼고 벽동집에게 여보게, 자네 문갑 열어 보았나?

출처 1911 화세계 104

용례 08

문헌 용례

김 쥬ᄉᆞ가 아모도 모로게 얼픗 집어 죡기에다 집어넛코 스침이를 쎄고 안져 이 말 뎌 말 쥬담만 ᄒᆞ다가 쥬인으로 도라왓ᄂᆞᆫᄃᆡ 구참령이 아ᄎᆞᆷ에 밥갑을 셰음ᄒᆞ야 주랴고 로비를 ᄭᅳᆨ니다가 얼골빗이 졸디에 변ᄒᆞ며 어허 이것이 엇의로 갓나 ᄒᆞ며 붓짐을 헷쳐 놋코.

현대어 풀이

김 주사가 아무도 모르게 얼픗 집어 조끼에다 집어넣고 시치미를 떼고 앉아 이 말 저 말 주담만 하다가 주인으로 돌아왔는데 구 참령이 아침에 밥값을 셈하여 주려고 노비를 꺼내다가 얼굴빛이 졸지에 변하며 어허 이것이 어디로 갔나 하며 봇짐을 헤쳐 놓고.

출처 1912 재봉춘 2_171

용례 09

문헌 용례

셩달이 ᄂᆡ외가 속으로ᄂᆞᆫ 벌셔 짐작 ᄒᆞ얏스나 모르ᄂᆞᆫ 체ᄒᆞ고 스침이 뚝 쎄이고 섯스니 허부령이 문 압헤 안즈며 「허」 나ᄂᆞᆫ 어듸ᄶᅡ지던지 자네를 밋엇ᄂᆞᆫ 고로 자네 ᄯᆞᆯ도 밋엇지.

현대어 풀이

성달이 내외가 속으로는 벌써 짐작하였으나 모른 체하고 시치미 뚝 떼고 섰으니 허 부령이 문 앞에 앉으며, 「허」 나는 어디까지든지 자네를 믿었는 고로 자네 딸도 믿었지.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시치미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시치미의 뜻과 역사